

충대극회 제19회 정기공연



COUNTDOWN POINT

Olov. Hartman 作
李方金 盤訳
英永哲 企劃
哲德演出

1978년 6월 5일, 7일. : 저녁 7시
6일: 오후 3시 · 저녁 7시
충전대 웨스터 민스터 채플

충전대학교 학도 호국단문 예부



激 勵 辞

「中전의 푸름 속에서 나를 찾자」는 것은 本校가 금년에 내세운 슬로건이었다. 지금 중전의 동산은 날로 푸름을 더해가고 중전인 모두들 가슴엔 希望과 歡喜에 가득 차 있다.

여기 우리의 劇會員들이 그동안 많은 역경과 시련을 딛고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스웨덴 작가 Olov. Hartman의 Counterpoint를 공연한다. 장하고 기특하고 축하 해야 할 일이다.

近間 우리 사회에서는 진정한 의미를 지닌 예술이라던가 사상을 찾아내기가 수월치 않다.

우리는 現實을 直視해야 할 때며, 主體性을 가지고 冷徹한 理性으로써 모든 일에 對處해야 할 일이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정신과 육신을 건강케 해주는 진정한 藝術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崇田의 어린 學生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스스로 탐구하고 애쓴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共感케 하고 함께 참여하는 보람을 주리라 믿는다.

劇會員들의 藝術에 대한 創意性과 그간의 努力を 거듭 치하해 마지 않는 바이며, 이번 공연이 많은 학생들의 참여속에 성황리에 마쳐줄 것을 하나님께 祈禱한다. 아울러 모든 이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存在가 確認되어 그 안에서 함께 하는 즐거움을 나눠 갖길 바란다.

이번 공연을 거듭 축하하는 바이다.

總長 高範瑞



作家와 Counterpoint

現代 스웨덴의 위어난 劇作家이며 神學者인 Olov. Hartman은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1950年代부터 하르트만은 희곡을 쓰기 시작하면서 스웨덴 기독교 최초의 도읍지인 Sigtuna 파운데 이션의 책임자로 부임하였다. 그는 그곳에서 스웨덴 교회의 예배의식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하르트만은 희랍극과 중세극 중에서 현대 감각으로 수용할 수 있는 祭儀的 요소와 루터교의 禮拜儀式의 劇的 요소의 만남을 위하여 禮拜劇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劇理論을 창조해 내고 禮拜劇作品을 썼다.

초기의 작품 「예언자의 복수」, 「생명의 면류관」, 「용광로의 불길」 등에서 하르트만은 전통적인 예배의식을 주장하고 있었다. 연기자들의 의상과 조명, 분장 등의 문제에서 그는 연극적인 것을 배제하고 禮拜의 엄숙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60年代 중반에 들어오면서 그의 禮拜의 개념은 教會內部라는 屋内空間에서 人間의 空間이라는 생활 현장으로 확대시키 나갔다.

그의 작품은 聖書를 바탕으로 해서 쓰여졌으나 성서를 소재나 주제로 택해 쓴 다른 작품과 다른 것은 「말씀」을 현대에 살아 움직이는 言語로 生動感을 가지게 한다는 점이다.

그의 작품 「Counterpoint」는 1967년 발표된 것으로 그의 작품中 난해한 詩劇으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면에서 지적되고 있는데 첫째는, 예배극이면서 난해한 심볼을 사용한다는 점이며 둘째는, 劇의 論理가 전통적인 論理를 따르지 않는 점이다. 베게트나 이오네스코의 戲曲이 난해한 것과 같이 하르트만도 난해한 作家가 되었다는 공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1967년 Tuve Nyström의 연출로 이 작품이 공연되었을 때 하르트만은 教會와 劇評家들에게서 심한 공격을 받았다. 카운터 포인트를 관극한 스웨덴의 劇評家 Allan Fayeström은 "하르트만의 마지막은 神을 부정한다."고 공격하였다.

이에 반박하여 하르트만은 "그것이 人間이다. 聖金曜日의 끝없는 반복으로 神을 부정하는 것이 人間이다. 그러나 人間과 神에게 있어서 아직도 부활의 아침은 있다."

人間의 사랑속에 内在해 있는 것은 한정지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그것과 같이 무언을 과피한 것은 관중들을 간접적으로 나마 劇에 참여시키기 위함이었다.

하르트만은 Counterpoint 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극이다. 그리고 교인들이 劇에 참여할 수 있게 의도되고 끝에 가서는 예배속에서 그들이 참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랬다."고 했다.

그러나 이러한 것보다 그가 더 원하는 것은 관중들이 예언자의 표적을 보게 하여 스스로가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해왔는가를 묻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침묵 속에서 복음의 소리를 듣고 가슴으로 기도하고 행동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하르트만은 이 작품을 썼다.

〈역자 李盤〉

모시는 글



이번에 공연케 되는 Counterpoint는
이전 작품들에서와 같은 보다큰 감명
과 충격을 여러분에게 줄 것이라 믿습
니다.

날로 새로워지려는 노력을 이제 여
기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 초연이
라는 영광을 같이 하려 합니다.
이 공연을 위해 도와주신 모든 분
들께 감사드립니다.

극회장 방영철

STAFF



의상 / 이 경자



장치 / 김 금수

극회장 방영철



진행 / 남 영희



조연출 / 조 남학



조명 / 장 기훈

극회장 방영철



섭외 / 이 정일



무감 / 박 정우



효과 / 남 애경

극회장 방영철

연출의 말



우리가 깨우침 연극은
우선 한판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끝이 날 것
아니, 연극은 「한판 벌임」이다.
한데 만남으로써 한판은 벌어진다. 한판은
는 생명의 빛으로 「충만된 사건」이다.
이 「한판 벌임」에서 곧 「큰일」이 난다.
「큰일남」이야말로 나도 없고 너도 없다.
나인 동시에 나이며 나인 동시에 너다.
「큰일」은 実在하는 것의 짓수이다.
「큰일남」은 위기가 아니라 고리어 어울어
사는 기쁨이다. 모든 이들이 함께 하려고 나
선다. 「태초의 말씀」이 거듭나 도무지 기쁜
것이다.
그러나, 텅빈 곳은 외롭고 슬프다. 시가지를
보라. 얼마나 공허하나. 오늘도 거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무참히 어가고 있느냐.
교통사고나 대화재, 살인사건은 「죄의 삶」
이다. 이 과는 시대의 삶은 지워질 수 있는
가. 아니 연극은 무엇을 낳는가.
오, 주여.
용서하시나이까.

연출 김영덕

CAST



1A / 황 성선



1B / 지 숙



2A / 이 용섭



2B / 이 수복



3A / 최 병일



3B / 오 한희



여인 4 / 김 은환

公演年譜

〈공연작품 연구〉

우리에게 연극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녹슬은 이 시대의 끝간 데에서 서성이는 우리는 부지런히 죽어가고 있는가, 거듭나고 있는가.

전쟁으로 겪여진 인간의 사랑을 재료로 해서 쓰여진 이 대본은 그대로 연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극성이 숨어있는 연극공연 재료에 불과하다. 물론 희곡 작가로서 제시한 드라마트루기의 문제들——예배극이라는 독특한 창조적 형식이라든지, 작가의 작품에 대한 神學的 태도라든지, 非順次的進行構造라든지, 난해한 並列的 형식의 대사라든지 하는 일련의 텍스트의 요소들은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힘든 작업이었다. 그러나 추출된 의미는 연극을 형상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감정의 비추론적인 표현을 위한 직관을 직접 유도해내는 근거로서 마땅한 것이 되지는 못했다. 어차피 대본은 연극 그 자체와 격돌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대본은 하나의 연극적 계약이 아니라 환경이다. 우리가 애써온 것은 대본에서 추출된 테마가 아니라 공연상의 연극적 콘텍스트였다.

이천년 전 나사렛의 젊은 그들은 가난했고 작은 무리였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바쳐졌다. 그들의 작은 행동은 구체적인 그 무엇을 드러냈기 때문에 마침내 가장 큰 사건을 일으켰다.

적어도 그들의 행동과 사건은 오늘날과 같은 종교적 메시지의 표방이 아니다. 가장 근원적인 생을 이루었고, 사랑을 위해 작은 고율을 떠돌았다.

이번 공연작품 훈련과정에서 우리가 깨우친 것은 연극에 참여한 사람들을 스스로 자신의 생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었다. 공연작품에서 자기만족을 위한 향수나, 은폐시킨 꾸밈 따위는 가장 큰 해악이다. 연극은 바쳐지는 생명의 드러남에 있다. 무엇을 드러내려는가, 어린애 눈총같이 투명한 생명력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환상에 솔직해지는 연기자의 신체였다. 연기자의 신체적 패턴은 어떻게 열리고 펼쳐지고 드러나는가, 그것의 근거는 무엇인가. 예술적 illusion을 만드는데는 하나의 外觀(appearance)이 필요했다.

‘예수의 사건’은 우리 연극에서 하나의 原型이며, 각 연기자의 신체적 패턴은 이것을 모방하고 반복한다. ‘예수의 사건’은 ‘신체적 사건’(bodily event)이다. 2000년이라는 시간이 아무리 무참

하였더라도 신체는 늘 존속되었고, 지각가능성이 있다. ‘예수의 사건’은 전부 신체적 구조에서 파악되는데, 그 신체적 구조의 도움에 의해서 그 사건은 세계 전체를 재구성한다. 세계는 원형적 형상이다. ‘예수의 사건’은 세계를 상징하는 유기체적 구조를 가진다. 세계 전체는 신체적 사건과 그것의 대상인 신체로서 이루어진다. 이 점에서 ‘예수의 사건’과 연극은 논리적인 역비례의 관계를 갖고 있다. 즉 연극은 세계 전체에서 출발하여 신체적 구조를 발견하려는 데에 있기 때문이다. 각 연기자의 신체적 패턴의 반복에서 신체는 생생히 살아있음을 신체 자체 내에서 한판 벌여 놓다. 한판 벌임에서 바로 큰일이 난다. 큰일은 ‘거룩한 것’과의 경험이다.

오늘날 ‘사랑의 메시지’ 조차 상품광고처럼 닳고 많아서 어느덧 우리는 무감자해지기 쉽다. 이러한 ‘공허한 사건’으로 전락했을 때 위기에 직면한다. 이것은 俗의 팽창에서 구체화된다. 가장 저속화된 것의 지각 양태는 전쟁이다. 전쟁은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의 극대화이며 동시에 그 한계점인 즉 점은 죄악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죄의 삶’이 어떻게 聖의 체계로 급전하는가.

그것은 상징에서 가능하다. 상징이란 聖과 俗의 두 영역을 지각하면서 그 둘을 함께하려는 노력이다. 이것은 연극의 창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예수의 사건’과 전쟁, ‘신체적 사건’과 연기자의 일상적 존재로서의 신체, 연극과 현실, 연기자와 관객, 古代와 현대를 ‘신체적 사건’의 리듬으로 함께 묶어 삶의 존재론적 동질성에 대한 원리를 깨우친다.

‘예수의 사건’은 오늘날 ‘공허한 사건’으로 선전되고 있다. 공허한 사건은 그 활동력이 양적 규정만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현실화되거나 신체화되지 못한다. ‘예수의 사건’이 오늘날 현대에서 구체적으로 聖別化되려면, ‘예수의 사건’에 대응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예수의 수난극적 상황과 Counterpoint의 연극적 사건과는 대응적 체계를 가진다. 연기자의 신체적 매개성에 의하여 연극은 実在를 지각하는 직접 체험의 장소가 되고, 그 지각의 자각성에서 관객은 참으로 “열려진 세계”와 만나게 되고, ‘태초의 말씀’은 생생히 살아난다.

(승대극회 연구부)

回	年譜	作 品 名	演 出
1	1921년 6 : 13	연종회 소인극 “절세영웅 나풀래옹의 말로” “대비극 노예의 탑” 풀풀	
2	1933년 7 : 7	전원극 “우리의 행진, 둥백꽃, 십년 후, 기세人間”	
3	1923년 7 : 28, 29	열랫성년회가 주관 고학생 후원회가 주관 “소인극”	
4	1965년 11 :	庵宮으로 돌아오다 창석영 작 李 盡 기회	선 진 호
5	1968년 10 : 28	Our Town by Thornton Wilder	이 대 주
6	1969년 10 : 10	의 자 들 이오네스코 作	이 대 주
7	1969년 10 : 28, 29	The Miracle Works by William Gibson	고 봉 일
8	1970년 5 : 15	聖著의 샘물 by John Millington Syege	한 영 계
9	1970년 10 : 28, 29	勝負의 終末 사유영·베케트 作	김 양 기
10	1971년 5 : 26, 27, 28, 31 6 : 1, 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전霓록 爬화 *	정 족 화
11	1971년	윤조영 作	주 정 서
12	1972년 9 : 25, 26, 27 5	담배 해독에 처래서 *	한 영 계
13	1973년 5 : 21, 22, 23	안돈·체홉 作	유 균 배
14	1973년 10 : 25, 26, 27	창금단지 (로마극)* 루라우터스 作	차 현 개
15	1974년 3 : 10, 11, 12	고도를 기다리며 *	
16	1975년 6 : 9, 10, 12, 13	사유엘·베케트 作	
17	1975년 10 : 29, 30, 31	인 터 뷔 인장·클로드·반·이델리 作	김 드 냉
18	1976년 3 : 17, 18	뱀	김 영 턱
19	1976년 6 : 1, 3, 4	장·클로드·반·이델리 作	김 드 냉
20	1976년 10 : 25, 26, 27, 28	출 빙	김 영 턱
21	1977년 3 : 16, 17, 18	유대성 作 (신입생 환영)	안 흥 순
22	1977년	에쿠우스	김 영 턱
23	1977년 6 : 15, 16, 17, 18	피터·웨터 作	김 영 턱
24	1977년	에쿠우스	김 영 턱
25	1977년 10 : 10, 11, 12, 13	피터·웨터 作	김 영 턱



韓獨ピアノ製造株式會社

